

지구경영학 석사학위 논문

강원도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가족관계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2020년 02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지구경영학과

손 은 영

강원도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가족관계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서 호 찬

이 논문을 지구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1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지구경영학과

손 은 영

손 은 영 의

지구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9년 12월

심사위원장

조 남 호 인

심 사 위 원

김 광 린 인

심 사 위 원

서 호 찬 인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감사의 글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으로서 나는 다문화인 아닌 것처럼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에 스며드는 듯 생활해 왔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키우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단순노동으로 전전하다가 검정고시를 통해 글로벌사이버대학교를 졸업하고 이 대학원에 오기까지 수많은 비난과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나 스스로 포기하고 싶고 게을러질 때마다 이승헌 총장님이 내려주시는 브레인 스포츠 수련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총장님이 내려주신 브레인 스포츠는 총장님이 직접 먼저 시도하고 효과를 본 결과물입니다. 일흔이 넘으셨는데도 끝없이 개척하고 창조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총장님의 일대기를 보면서 “나는 이 지구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논문의 탄생이 그 시작입니다.

이 연구가 완성되기까지 논문의 설문지 수정 보완부터 통계를 내는 과정과 논문 쓰는 방법까지 단계별로 수차례의 수정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지도해 주시고 의기소침해지거나 힘들어서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격려와 함께 끝까지 이끌어주신 서호찬 교수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조언과 함께 논문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참고문헌 작성방법을 친절히 가르쳐 주시고 심사까지 맡아주신 김광린 교수님과 심사와 함께 논문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펴 봐주신 조남호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구경영학과 원우님들도 감사합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과 이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춘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웨이님, 횡성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남구현팀장님, 황순란님, 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남현님, 동해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매화님, 삼척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박나운님, 홍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김은숙님, 정현숙강사님, 춘천여성인력개발원의 용영미팀장님의 프로그램 운영 선생님들,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김현숙기자님, 춘천방송통신대학교 중문과 김홍화 학회장님, 유주희님, 최정남님, 허영봉님, 차이홍중국어 황수홍팀장님, 다문화의 마당발 윤향옥님, 김민정님, 이해선님, 전계화님, 최국화님, 최수연님, 인제국학기공강사 박미숙님, 춘천보건소 김영숙소장님, 유명숙소장님, 단월드

지도자 서병각님, 김현숙님, 김승나님, 춘천지역의 효자지역아동센터, 퇴계지역아동센터의 사무장님과 센터장님, 장학초등학교, 만천초등학교, 후평초등학교, 봉의초등학교 교감과 교장선생님 등이 함께 조언과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 설문지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직함도 성함도 모르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짧은 시간에 설문지를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 설문지를 받는 과정에서 무리한 부탁을 서슴없이 했었고 의사전달이 원활하지 못해 오해도 생겼었습니다. 그 부탁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분들과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단월드의 연원(淵源)자이면서 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고 검정고시를 침착하게 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고 배움의 길을 열어주신 이창호 원장님, 먼저 박사과정을 마치고 아낌없이 조언을 주신 박지영 박사님, 오타를 도와주신 석상순 박사님께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 연구를 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잘한 것도 없는데 항상 열심히 산다고 격려해 주신 시댁 식구들, 나이 들어 공부한다고 걱정이 앞서면서도 대견해 하시는 친정 부모님, 가문의 영광이라며 자랑스러워 하는 형제들, 항상 가정에 소홀함을 채워주고 아무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후원해 준 남편 유근섭님께도 미안한 마음과 함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Get Bright! 2020

항상 밝고 환한 빛으로 나를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지구경영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겨울 햇살을 한가득 머금은 창가에서

2019년 12월 12일

손은영 올림

국문초록

강원도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가족관계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는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이 가족건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강원지역 18개 시·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15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 자아정체감, 가족건강성 총 3가지 척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으로 나이는 30대가 45.5%, 학력은 고졸 이상이 39.0%, 나라는 중국 40.3%,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73.4%, 수입은 100만 원 이상이 49.0%의 집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이 전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관련 스트레스와 미래 확신성으로 밝혀졌다. 강원도는 지역 특성상 취업률이 아주 낮다.

셋째,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이 가족원 간의 유대와 가족원 간의 가치체계 공유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 한 결과, 미래 확신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미래 확신성이 낮을수록, 가족 간의 유대와 가치체계 공유는 낮게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의 가족관계 스트레스, 자아정체감, 가족건강성의 직접적인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의 가족건강성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가족관계 스트레스, 가족건강성, 자아정체감,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다문화.

목 차

감사의 글	i
국문초록	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4
1) 연구모형	4
2) 연구가설	5

II. 이론적 배경 6

1. 가족관계 스트레스	6
1) 가족관계 스트레스의 개념	6
2)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	7
2. 자아정체감	10
1) 자아정체감의 개념	10
2)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자아정체감	13
3. 가족건강성	14
1) 가족건강성의 개념	14
2)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	16

III. 연구방법 18

1. 연구대상	18
2. 조사도구의 신뢰도 검증	18
1) 가족관계 스트레스	19

2) 자아정체감	21
3) 가족건강성	22
IV. 연구결과	24
1. 정규성 검정	24
2. 왜도와 첨도	26
3.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28
1)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28
2)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각 변수별 집단 비교	30
4. 가족관계 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39
1)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39
(1)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관계 총합에 미치는 영향	39
(2)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원 간의 유대에 미치는 영향	40
(3)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42
(4)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원 간의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43
2) 자아정체감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44
(1) 자아정체감이 가족원 간의 유대에 미치는 영향	44
(2) 자아정체감이 가족원 간의 가치체계 공유에 미치는 영향	45
5. 연구모형의 가설검증	46
V. 논의 및 결론	47
참고문헌	53
부 록	58
설문지	59
ABSTRACT	68

표 목 차

<표Ⅲ-1> 가족관계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하위요인별 구성	20
<표Ⅲ-2> 자아정체감 측정도구의 하위요인별 구성	21
<표Ⅲ-3> 가족건강성 측정도구의 하위요인별 구성	23
<표 IV-1> 가족관계 스트레스, 가족건강성, 자아정체감의 정규성 검정	25
<표 IV-2> 가족관계 스트레스, 가족건강성, 자아정체감의 왜도와 첨도	27
<표 IV-3>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9
<표 IV-4>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나이별 집단 비교	30
<표 IV-5>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학력별 집단 비교	32
<표 IV-6>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자녀별 집단 비교	35
<표 IV-7>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거주기간별 집단 비교	37
<표 IV-8>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수입별 집단 비교	38
<표 IV-9>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 총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39
<표 IV-10>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원간의 유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41
<표 IV-11>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42
<표 IV-12>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원간의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43
<표IV-13> 자아정체감이 가족원간의 유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44
<표 IV-14> 자아정체감이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45
<표 IV-15> 연구모형의 가설검증 결과	46

그림목차

<그림 I -1>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에 따른 자아정체감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모형	5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재 한국은 국제결혼과 함께 외국인의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통문화를 유지하고 계승, 발전시켜 왔던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는 다른 민족의 이동이 다반사로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신에서는 아직도 하나의 민족과 혈통이라는 생각이 매우 강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은 이주노동자·외국인 유학생·새터민 등의 이주민과는 달리, 한국의 남성과의 결혼으로 인해 한국에 거주하는 상태를 대부분으로 이루어졌다. 결혼 이주여성들은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유입된 인종적이나 사회적으로 소수자의 집단으로 이루어졌다.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한국에 정착하고 결혼생활과 함께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지원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새로운 집단으로 등장하였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문화, 인종, 경제, 삶의 모습 등의 활발한 소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사회, 다민족의 시대로 변하고 있다¹⁾. 1990년 후반 농촌인구 감소와 도시화로 인한 농촌 총각의 결혼문제가 대두되어 중국·일본·동남아에서 우리나라로 결혼을 희망하는 여성과 농촌 총각의 결혼으로 유입된 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하였다. 다문화 사회는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사회이다²⁾. 한국의 인구 총조사에서 2015년 11월에 발표결과 총인구는 “국적상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산한 인구”로 외국인 비율이 3.4%이고, 3개월 이상 국내 미 체류자를 제외한 “실제 거주 인구”에서 내국인 49,705,663명이고, 외국인 1,363,712명으로 총인구 51,069,375명으로 조사되었다. 윤경희 연구에서 구성원 상호 간에 인종이나 민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속해있는 국가의 이익이나 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사회구조가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³⁾ 있다고 밝혔다⁴⁾.

1) 박수희,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 간 부모의 양육태도와 영유아 친사회성의 차이 분석,”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

2) 최미, “국내 다문화 상담 연구 동향: 학술지 및 학위 논문 분석,” (상담학연구, Vol.17 No.5, 2016).

3) 홍성태,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 문제가 자녀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2016).

4) 윤경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통합형 범죄안전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의 숫자는 해마다 증가되며, 2016년도 통계에 의하면 배우자,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 각각 30만 명, 그에 따른 자녀는 2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2017년 다문화혼인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보다 1% 증가한 2만 1917건에 이르며, 혼인의 비율을 보면 8.3%로 2016년보다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른 2017년 신생아 20명 중 1명은 다문화가정 출생아이며, 국내 전체 출생아(35만 7771명) 중 5.2%를 차지했다⁵⁾. 외국인 노동자, 조선족 이주민, 결혼이주여성, 한민족 이주자, 새터민 등이 단일민족이라는 견고한 사상이 유지되고 있는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은 출신나라의 모든 관계를 잠시 거두고 결혼과 함께 이주를 하여 이주국의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특별한 경험을 지니게 된다. 다시 말해 이주국에 대한 사전 탐색이나 관찰을 한 후 결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서로 적응 없이 만나고 결혼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아직도 한국 사회는 외국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일반가족에 비해 다문화가족 부부간의 언어장벽이 배우자 출신 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부족하기에 위기를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다문화가족들은 보통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경제적으로 압박이 있거나, 정치적인 이유로도 다른 국가로 이주를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이주를 하게 되고 보통 가난한 나라에서 조금 더 잘사는 나라로 이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은 충분한 준비 없이 다른 사회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심리적인 부담과 사회적응력, 문화적응력과 경제적으로도 적응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즉, 자신의 원래 문화와 한국의 문화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심해지는 현실을 맞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신의 문화와 한국문화를 제각기 독립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적절히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적용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이며 건강한 사람으로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을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은 대부분 가족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수반하게 된다. 새로운 가족 환경에서

연구, Vol.15 No.2, 2016).

5) 손해용, “출생아 중 다문화 가구 자녀 비중 첫 5% 넘어,”(『중앙일보』, 2018.11.23).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불안감, 우울감, 소외감, 정체성 혼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방치되고 관리되지 않을 경우, 정신병 등의 부정적인 결과와 삶의 질이 현저히 낮아진다.

2019년 현재 강원지역 다문화 가구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7년 12월 말 기준 통계청 인구 총 조사에 따르면 강원지역 다문화 가구는 7,495가구로 전년 대비 183가구(2.5%) 증가하였고, 전체 가구 대비 1.2%를 차지하였다. 다문화 가구원은 2만 5,943명으로 전년 대비 361명(1.4%) 증가하였고 다문화 가구는 전년 대비 증감률은 2.5%로 전국(0.9%)에 비해 1.6% 높은 수준이었다.

2017년 강원도 다문화 혼인은 519건으로 전년 대비 41건(8.6%) 증가하였고, 다문화 이혼은 249건으로 전년 대비 3건(-5.0) 감소하였다. 2017년 강원도 다문화 결혼을 한 남편의 평균 나이는 38.3세, 아내의 평균 초혼 나이는 27.0세로 나왔고, 다문화인과 결혼을 한 남녀 간의 평균 초혼 연령차는 11.3세로 나타났다으며, 2017년 강원도 다문화인과 결혼을 한 남편의 평균 재혼 나이는 49.4세, 아내의 평균 재혼 나이는 39.5세이고 남녀 간의 평균 재혼 연령차는 9.9세로 나타났다.

2017년 강원도 다문화 혼인을 한 외국 출신의 남편 국적은 미국의 4.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 2.9%, 베트남 1.3%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인과 결혼을 아내 국적은 베트남이 37.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 17.1%, 필리핀 7.1% 순이다.

2017년 강원도 다문화인과 이혼을 한 타국의 남편 국적은 중국이 5.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본 4.5%, 미국 2.4% 순으로 나타났고, 다문화인과 이혼을 한 타국의 아내 국적은 베트남이 32.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 29.6%, 캄보디아 8.5% 순으로 나타났다⁶⁾.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강원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가족건강성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어떻게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이 속한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아정체감의 유무와 자아

6)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9).

정체감의 상실 정도가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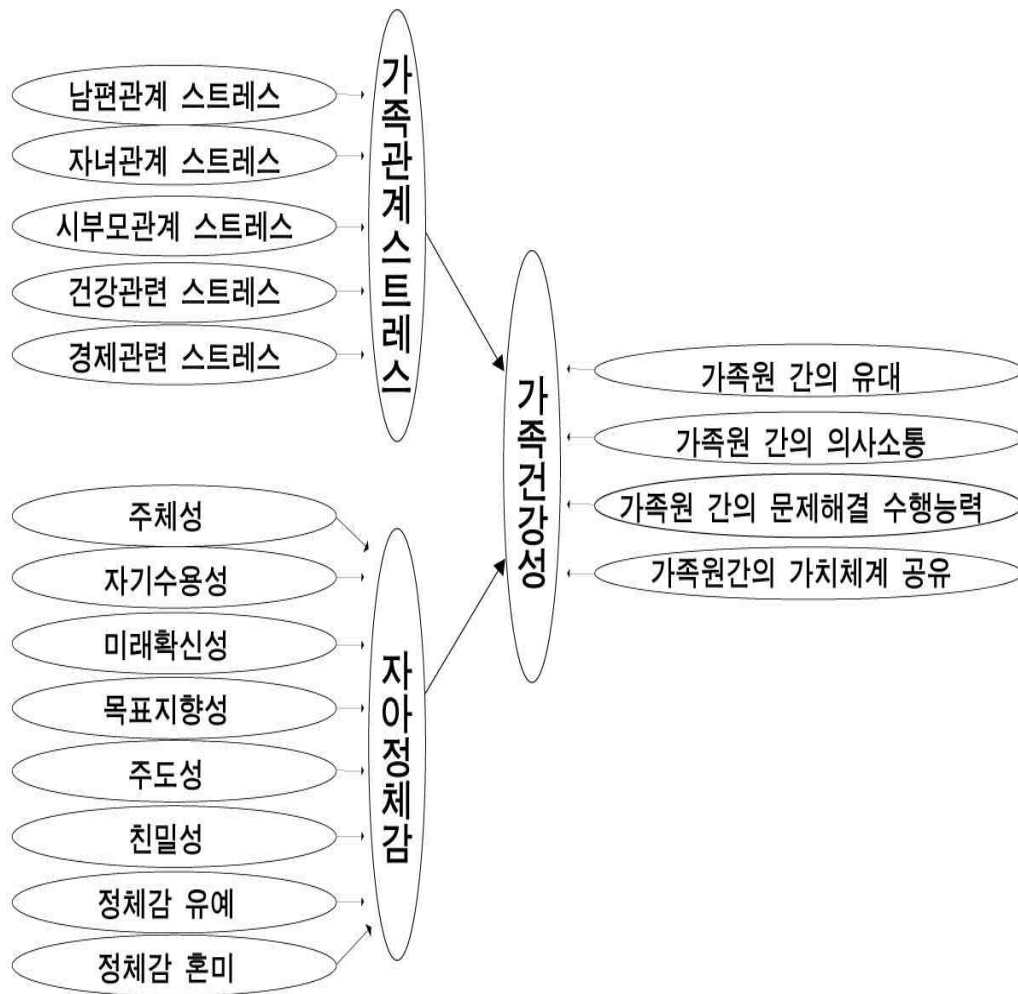
2.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이 연구는 강원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에게 부여되는 가족관계 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이 가족건강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 자아정체감, 가족건강성이 수준을 알아보고,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조사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 자아정체감, 가족건강성 간의 경로를 파악한 직접 영향과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과 가족 구성원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의 인종적이나 민족적으로 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그들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1) 연구모형

이 연구에서는 강원도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의 필요성과 이론적 가정에 따라 다음의 <그림 I-1>과 같은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림 I-1] 강원도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모형

2) 연구가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강원도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는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강원도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자아정체감이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족관계 스트레스

1) 가족관계 스트레스의 개념

가족관계 스트레스 연구는 한 가족이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하는가를 분석하고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⁷⁾ 시작하게 되었다.

가족관계 스트레스란 가족이 안정된 상태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압력으로 개인과 가족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달과 변화해나가는 과정으로 불가피하게 경험하게 되는 가족체계 내의 긴장과 압력이다⁸⁾. 위기에 처한 가족은 일상적인 역할이나 과업을 수행하기 힘들며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하고 가족 구성원들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이다⁹⁾.

맥커빈과 패터슨은 생활사를 가족들의 상호작용과 그들의 구조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가족 스트레스 개념을 정립하였는데, 가족관계 스트레스는 가족에게 영향을 끼치는 생활사로 결혼, 출산, 입학, 졸업, 자녀의 독립 등 예측 가능한 문제들로부터 생겨날 수도 있지만 가족구성원의 죽음이나 질병, 이혼 등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로부터 야기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¹⁰⁾. 기능적으로 가족이 불균형으로 인해 실제적이거나 지각된 요구와 능력의 적응을 요구하는 상태를 가족관계 스트레스라고 하였다¹¹⁾.

7) 성수진, “중소기업 근로자의 스트레스와 위기감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 (경산 :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2017).

8) 박준희, “기혼남녀의 성격특성, 가족관계스트레스, 여가활동이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9) 성수진, “중소기업 근로자의 스트레스와 위기감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 (경산 :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2017).

10) 박미희, “다문화가족 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1) McCubbin & Patterson, *The family stress process: The double ABC-X model of adjustment and adaption*. In H. I. McCubbin, M. B. Sussman & J. M. Patterson. *Social stress and the family: Advances and developments in family stress theory*

라자루스와 폴크만은 스트레스를 개인이 가진 자원을 초과하여 개인의 안녕 상태를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개인과 환경 간의 특정 관계라고 보았다. 그리고 셀리에(Selye)는 생체내의 원인 모르는 변화를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한 증상들을 나타내는 상태라고 하였다¹²⁾.

따라서 가족관계 스트레스란 외부의 환경변화와 압력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외부환경으로부터 위협이나 위험에 대한 지각과 반응을 포함하는 과정이며, 위협을 주거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적 자극으로 생활의 변화와 적응이 요구되는 사건이다¹³⁾.

한편 올슨 등은 가족관계 스트레스를 가족 구성원들의 생활주기에 따라 나타나는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불가피하게 경험하게 될 때 가족 체계내의 긴장과 위협으로부터 나타나는 가족의 심리적인 변화라고 하였으며, 월시는 가족관계 스트레스를 어떤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가족은 일상적인 역할이나 과업을 수행하기 힘들며,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하였다¹⁴⁾.

가족관계 스트레스 이론으로는 힐¹⁵⁾의 경험적 연구를 기반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체계적인 이론이 발달 되어 왔으며, 1930년대와 1940년대 이후로 스트레스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위협들에도 관심¹⁶⁾을 가지게 되었다. 가족마다 스트레스와 위기에 적응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며, 가족관계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가족관계 스트레스 원은 가족체계 내 변화를 일으키기 충분한 사건이나 스트레스 과정이다¹⁷⁾.

and research. (New York: Haworth Press, 1983).

12) 박미희, “다문화가족 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3) 박미희, “다문화가족 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2014).

14) Olson, D.H. & McCubbin, H.W, “*Families: What Makes Them Work* Beverly Hills,” (CA: Sage, 1983).

15) Hill, R, *Families under stress*, (New York: Harper & Brothers, 1949).

16) 양옥경 외 역, “*사회복지와 탄력성*,” (서울: 도서출 나눔의 집, 2009).

17) 박미희, “다문화가족 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2)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은 새로운 생활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는 가족 간의 갈등, 사회적 재정적 자원의 부족, 차별 등¹⁸⁾이고, 자녀교육과 양육의 문제, 가정폭력, 의사소통 등은 한국문화의 적응실패와 결혼생활의 만족을 떨어뜨리고 있다¹⁹⁾.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이 겪고 있는 가족관계 스트레스는 자신들의 복합적인 문화적 소속을 가지고, 단 하나의 문화적 소속만을 경험한 상호 다른 이질성과 서로 다른 가족 환경에서 성장한 뒤 결혼을 통해 한국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한국의 문화와 가풍을 가르치고자 하는 간섭과 외국인 며느리를 배려하지 않는 태도가 며느리의 학대와 고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시부모와의 불화들은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가족관계는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²⁰⁾.

특히 가족관계 중 고부 관계는 가장 복잡하고 갈등이 많으며, 고부 관계에서 오는 갈등은 가족구조에서 파생되는 구조적 원인과 고부간의 성격 차이 등 개인적 원인으로 다문화가족 여성 개인 차원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불화와 연결되고 결국은 가족해체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²¹⁾.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이 생활하면서 중요한 일들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2.97%,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잘 대처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2.95% 순으로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은 가족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²⁾.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 및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응 과정상 가정폭력, 시댁 식

18) Hovey, J. D. and C. G. Magana, "Acculturative stress, anxiety, and depression among Mexican immigrant farmworkers in the Midwest United States," (Journal of Immigrant Health, 2(3) , 83-102, 2000).

19) 양철호·김자·양선화·신동·조지,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6, 127-149, 2003).

20) 홍미기,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부 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와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21) 박미희, "다문화가족 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22) 박미희, "다문화가족 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구와의 갈등, 가정 경제의 어려움, 남편과의 관계 등 가족적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건강관련 스트레스로는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적절히 해결되지 못 할 경우 정신 건강 상의 위험이 높아지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우울, 초조감, 긴장,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과 개인의 자존감과 성실성 등을 위협하는 심리적·신체적 반응으로 볼 수 있다는 가족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점점 심화 되면 가족체계의 불균형, 부조화 그리고 해체의 상태에 직면하게 되면 가족 위기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일상적인 역할이나 과업을 수행하기 힘들며,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건강관련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다. 즉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의 스트레스는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정신건강의 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관계에서 불화의 원인이 되어 가족해체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²³⁾.

한편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이 심각하게 경험하는 스트레스로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은 결혼 동기가 경제적 이유로서 경제적 윤택과 본국의 가족들에게도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다문화가족 가구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⁴⁾. 즉,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대부분은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이주한 여성들이다. 그러나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 남성들은 대다수가 상류계층이 아니라 농·어촌이나 도시의 저소득층으로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의 이해와 상충된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은 결혼과 이민이라는 생활상의 커다란 변화를 동시에 겪으며, 가족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낮은 사회 문화에 적응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 가족 구성원으로서 결혼생활과 일상생활 변화에 따른 고도의 재적응이 필요한 입장에 놓여 있다²⁵⁾.

23) 박연희,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요인 연구-가족관계 스트레스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24) 강현옥, “여성결혼이민자가 인지하는 가족 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0 No.31, 2009).

25) 박미희, “다문화가족 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2. 자아정체감

1) 자아정체감 개념

자아정체감이란 Erikson의 자아발달 이론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으로 Erikson은 2차 세계대전에서 귀환하는 병사들의 심리적 삶에서 일어난 중심적 장애를 기술하기 위해 자아정체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자아정체감이란 성취와 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고정적이거나 불변하는 것도 아니다²⁶⁾. 결국 사회적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개정되는 자신에 대한 현실감이라고 보았으며, 개인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 개인의 독특한 심리적 욕구 및 흥미와 방어, 개인이 거주하는 문화적 환경으로 파악하였고²⁷⁾ 서로 상호작용 한다고 보았다.

박아청²⁸⁾은 자아정체감을 아이덴티티 감이라고도 표현하여 이것은 자기의식의 내적인 연속성과 일관성 위에 성립되는 주체적인 자기의식이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안정감으로써 사회적으로 인정된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고 있다는 자기평가에 근거한 확신이라고도 말하였다²⁹⁾.

뇌교육과 명상이 주는 스트레스 완화, 긍정적 감정 및 자아 정체감 증진, 정서 조절력 향상 등 과학적·의학적 효과야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소개돼 있다. 뇌교육은 신체활동과 정서, 정체성이 하나로 통합된 체험형 정서교육으로 자아정체감과 긍정적인 정서를 향상시켜 건강하고 소통 가능한 문화를 조성한다³⁰⁾.

Erikson에 의해 제창된 자아정체감이란 유아기 이후 형성되어 온 다양한 동일시나 자아상이 청년기에 취사 선택되어 재구성 됨으로서 성립하는 동일성과 연속성을 가진 자아의 확립상태를 말한다³¹⁾. 또한 자아정체감은 인간이 성장하면서

26) 성하선, “의식고도화훈련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27) 박정훈, “자아정체성 개념으로 본 독거노인의 주의식과 주거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Vol.27 No.10., 2011).

28) 박아청, “정체감 연구의 전망과 과제” (서울: 학지사, 2003b).

29) 성하선, “의식고도화훈련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통대학교 산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30) 최재호, “경침뇌파진동수련이 당뇨노인의 수면의 질, 우울, 혈당, 혈압에 미치는 영향,” (국제뇌교육종합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31) 박아청, “사춘기의 이해,” (서울 : 교육과학사, 2000).

접하게 되는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 인생 목표, 가치관, 또는 이념 등에서 자기가 지니는 독특성에 대한 자각(자기인식)과 이에 부합되는 자기통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해 가려는 의식적, 무의식적 노력이라고 정의하였다³²⁾. 다양한 분야의 자아에 대한 관점으로 정신분석학에서는 자아를 성격의 하위구성 요소 중, 비교적 늦게 자각과 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현상학적 관점에서는 자신에 대한 주관적 의식과 가치관의 총화로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 가는 능력으로 이해한다.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는 환경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 발달 되어 가는 자기 존재의 통합된 인식의 틀로 이해하고 있다. 대학생에게 자아정체감의 형성 영향요인에 있어 김선애 등은 부모의 양육 태도가 가장 주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고, 송현옥 등³³⁾은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의 형성 발달에서 가정과 학교 등의 환경적 변인들과 자기 고양감, 안녕감 등의 심리적 특성이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박아청³⁴⁾은 성인기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있어 남녀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중년여성은 ‘여성성’, 혹은 ‘모성성’이라는 것이, 20대, 30대 육아기를 통하여 어떻게 연마되어 자아정체감에 자리 잡는 가장 중추적인 문제라 하였고, 중년 남성은 직업 생활의 안정과 유지의 문제로 실직에 대한 두려움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다. 그래서 남성들은 중년기에 이르러 진정한 삶을 찾고자 하는 문제에 당면하며, 그 결과 자아정체감 문제가 대두된다고 하였다. 위의 연구결과에 보여주듯 자아정체감 형성은 주변 환경과 심리적 변인에 의해 수동적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즉, 느끼는 주체나 개인에게 있어, 자신의 능동성보다는 주변 환경이나 처해있는 상황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경향을 보인다. 김명소³⁵⁾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단순한 쾌락적 행복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삶 또는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는 삶에서³⁶⁾ 얻어지고,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를 기준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 남녀의 관계적 자아 연구에서 건강하고 기능적인

32) 노주영, “고등학교 2학년 미술수업에서 UCC 스토리텔링을 통한 자기표현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33) 송현옥,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간의 구조분석,”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34) 박아청, “사춘기의 이해,” (서울 : 교육과학사, 2000).

35) 김명소, 김지경, “한국인의 관계적 자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 314-315, 2003).

36) 오근희, “수영 스포츠 참여자 중독과 심리적 웰빙의 관계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Vol.49 No.6, 2010).

자아를 가진 사람일수록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타인과의 공감과 배려를 중심으로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김순기 등³⁷⁾은 자아정체감은 성인의 심리적 안녕 수준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안녕 수준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아정체감을 발달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아정체성 수준의 성차를 보여 여자가 남자보다 자아정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성차별적인 사회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구 등은 일생을 통하여 환경과 자신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주관적인 안녕감의 수준에는 자아정체감이라는 내현적 속성에 의해 달리 지각될 가능성이 있고, 자아정체감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개인들이 느끼는 안녕감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복희 등의 중년기취업을 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 영향요인은 가계경제 수준이며, 간접적으로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은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다. 김정신 등은 자아정체감이 낮은 중년기 여성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개념을 지니게 되고, 삶의 대해서도 불만족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정체감은 삶의 질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년의 위기감을 낮춰서 성공적인 중년기를 맞이하는 중요한 매개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달리 변외진 등³⁸⁾은 중년여성에게서 위기감이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직접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사회적 지지와 내적 가족 지지체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영 등은 중년기 여성의 우울과 자아정체감은 적상 관계를 갖고 우울 정도가 낮을수록 자아정체감은 높았고, 중년기 여성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환경들이 우울과 자아정체감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며, 중년기 여성에게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삼순의 연구에서 스트레스 증상 정도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에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낮았다.

이와 같은 이론을 종합해 보면 결국 자아정체감이란 자기라는 것, 자기의 존재 증명, 진정한 자기, 주체성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³⁹⁾. 자아정체감(ego-identity)

37) 김순기·유영주, “기혼자녀가 지각하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이 결혼 후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43-64, 2001).

38) 변외진·김춘경, “내적가족체계치료 프로그램이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 증진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5), 47-63, 2007).

39) 이순영, “심성계발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여학생의 자아정체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공주: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나”라고 하는 자신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⁰⁾

2)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자아정체감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자아정체감은 개인의 연속성, 단일성, 또는 독자성, 불변성이고, 또 이와 같은 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적 감각이며⁴¹⁾,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내 안에서 어떤 답이 나오는지 바라보는 힘이다. 자아정체감은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으며, 개인이 속한 민족, 국가, 지역에 대한 귀속감이라 할 수 있는 객관적 정체감은 소속된 집단에 잘 통합되는 경우에 발달하게 되며, 이러한 주관적 및 객관적 자아정체감은 어느 한 시기에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기에서 시작하여, 특히 청소년기에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된다⁴²⁾.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은 삶의 터전을 모국과 이주 국가 사이에서 국가정체감과 민족정체감을 동일시함과 동시에 그 사이에 있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면서 자신만의 고유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인지한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으로 보고자 하며 그 하위요인은 분류기준에 따라 주체성, 자기 수용성, 미래 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정체감 유예, 정체감 혼미 등 8개 영역으로 나누었다. 여기서 주체성은 능력감 즉, 주관적인 역할 혹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래하여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느낌의 정도, 자신의 연속성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자기 수용성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미래 확신성은 자신의 장래계획에 대한 확신과 희망의 정도이며, 목표 지향성은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신뢰 및 과업수행에 대한 실현 의지를 말한다. 주도성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 및 주도적인 실행 의지를 말하며, 친밀성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유지를 위한 융통성 및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노출 정도를 말한다. 정체감 유예는 자신의 사고와 행동에 유연성이 결여되어 있고, 어릴 적 학습한 것에 대한 융통성을 부여하

40) 황향희, “다문화가정 여가교육스쿨을 통한 자아정체감 연구,”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007, 24(4), 59-72).

41) Erikson, E. H,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W.Norton & Company, 1968).

42) 홍미송, “중국동포 초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인식의 관계,” (고려사이버대 융합정보대학원 석사논문, 교육융합연구, 2018, Vol. 16, No. 2, 69-91 74p, 2017).

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정체성 혼미는 정체감이 결여되어 있고, 자신과 주변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자신에 대한 확신감이 없는 것을 말한다⁴³⁾).

3. 가족건강성

1) 가족건강성 개념

건강한 가족은 오토가 제시한 개념으로 가족 특성의 연구자나 임상가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규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족의 강점을 밝히려 하였다. 연구대상을 일반가족으로 하여 가족들이 지각하는 가족의 강점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건강한 가족의 강점은 가족생활주기를 거치면서 변화되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⁴⁴⁾. 건강한 가족의 여러 강점중에서 각각의 가족 성원이 가족 내·외부에서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건강한 가족의 구성요소는 가족이 신체적·정서적, 정신적인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가족 구성원들의 욕구에 민감한 지각능력, 의사소통 능력, 가족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상호존중 등을 수행할 때 강한 가족임을 제시하였다⁴⁵⁾. 즉, 강한 가족이란 긍정적인 가족 정체감을 형성하고 가족원 간에 만족스러운 상호작용을 증진 시키며, 가족의 잠재력을 격려하는 특성을 지닌 가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⁴⁶⁾.

건강한 가족을 제시한 올슨에 따르면 건강한 가족이란 스트레스와 가족의 문제에 효율적인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고, 가족체계 내·외적으로 대처자원을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와 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함으로써 적절한 응집성, 적응성,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족이라고 하였다⁴⁷⁾.

43) 박아청,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996).

44) 박연희,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요인 연구-가족관계 스트레스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45) 박연희,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요인 연구-가족관계 스트레스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46) 박미희, “다문화가족 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47) 이태희, “다문화가족 자녀가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

디프레인⁴⁸⁾은 모든 가족은 강점을 갖고 있으며, 도전과 잠재적 성장의 역량을 지니고 있으며, 가족이 그들의 문제를 보려 한다면 문제만을 보게 되고, 가족의 강점을 보려 한다면 강점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강점은 미래의 긍정적 성장과 변화에 기초가 되며, 나아가 건강한 가족에서 성장할 때 건강한 가족을 이루기가 더 쉽다고 하였으며, 건강 가족은 가족 간 상호작용의 질이 가족 개개인의 심리적 안녕에 기여한다고 정의하였다⁴⁹⁾.

카사스⁵⁰⁾의 연구에서 기능적 가족은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며 즐기는 가족이라고 정의하였고, 블룸은 기능적 가족이란 가족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외부상황을 통제·조정할 수 있으며, 가족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가족의 사회성을 고무하는 가족이라고 정의하였다. 벨킨 등도 기능하는 가족이란 가족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⁵¹⁾.

트리베트⁵²⁾ 등은 건강 가족이란 가족 강점의 특성상 주로 대인관계 적이고 가족 내부적임을 제시하면서, 가족 강점은 위기와 스트레스에 반응하고, 욕구들을 충족시키며, 가족 시스템의 기능을 촉진 시키고 향상시키며 강화시키는데 이용되는 다양하고 개별적인 가족원과 가족 단위의 능력과 가능성이라고 하였다⁵³⁾.

한국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건강 가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유영주는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 사회의 건강 가족에 대한 학문적 정의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⁵⁴⁾. 건강 가족을 가정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기능을 잘 수행할 때⁵⁵⁾, 집단으로서 가정의 기능을

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자본을 조절변수로,”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정책연구, 2015).

48) Defrain, J, “Qualities of strong families around the world,” (경희가족상담·교육센터 해외석학청특별강연회 자료집, 2003).

49) 강희경, “가족의 건강성과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Vol.23 No.3, 2005).

50) Casas, C, Stinnet, N, DeFrain, J, William, R, & Lee, P, “Latin American family functioning,” (Family perspectives, 18, 1984).

51) 박미희, “다문화가족 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재인용).

52) Trivette, Carol M & Dunst, CarlJ, “Assessing family strengths and family functioning style,” (Topics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0:16-35, 1990).

53) 박미희, “다문화가족 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54) 유영주,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복지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가족생활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45-63. 1991.

잘 수행하는 가정이 된다고 하였다⁵⁶⁾. 이처럼 가족이 일상적인 가족생활 중에서 발생하는 가족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족건강성이라고 하였다. 김혜신은 가족체계 내에서 개인과 관계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가족원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인 가족 간의 유대, 의사소통,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가 조화롭고,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고, 개개인의 발달을 도모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가족으로 정의하였다⁵⁷⁾. 건강한 가족은 체계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체계의 전체성을 이루고 체계의 평형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⁵⁸⁾. 따라서 건강한 가정을 육성해야 한다. 인간은 가족의 정서적·관계적 기능을 통하여 안정감과 진정한 전인적 인간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의 사회성·공동체성은 가족생활을 통하여 길러지기 때문이다⁵⁹⁾.

2)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은 다문화가족의 혼인과 이혼이 사회현상과 맞물리게 되면서 다문화가족 여성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관심을 주목하게 되었다⁶⁰⁾.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속한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부부간의 역할 기대의 불만족과 고부간의 불신은, 며느리를 구박하고 아들에게 며느리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남존여비적 태도를 가지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였다⁶¹⁾. 이로 인해 의사소통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폭력을 행사하고 문화적 차이로

55) 김혜신,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성부부의 가족건강성 관련 변인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1).

56) 박선민, “여자결혼이민자의 사회적자본과 가족건강성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11).

57) 김혜신,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성 부부의 가족건강성 관련 변인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58) 유영주,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개발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9권 2호, 119-151, 2004).

59) 이선정, “대학생의 가족건강성 및 관련 변인이 부모됨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Vol.14 No.1, 2009).

60) 박미희, “다문화가족 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61) 박미희, “다문화가족 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인한 실수를 개인의 부정적인 성격과 성향으로 치부시킴으로써 며느리에게 과격한 표현으로 심리적 상처를 주고 있다⁶²⁾. 가정폭력과 성적 학대, 인격 모독, 경제적 문제와 외출 등의 행동을 통제하고, 의심과 언어적·신체적 폭력 행동 등은 다문화가족 여성의 고립과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문화가족 여성들은 이러한 복잡한 역동 관계를 해결하는 일차적 수단인 의사소통에서부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 폭력적인 방법이 동원되기도 하기 때문이다⁶³⁾.

이러한 문제들은 다문화가족의 이혼율과 재혼율의 증가는 가족문화에 변화를 주고 있을 뿐 아니라 부계 성씨에 기반한 가족 질서와 이에 근거한 가족의 가치가 일대 혼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낸다. 가족 가치관이란 가족에 관하여 바람직한 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화되고 조직화 된 관념체이며, 가족에 관한 포괄적인 태도로써 가족 내에서 결혼생활을 하는데 주요하게 작용하는 가치관으로 결혼관, 성역할관, 가족주의 가치관을 들 수 있다.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결혼의 질은 결혼안정성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결혼의 질은 훌륭한 판단, 적절한 의사소통, 높은 결혼 행복도, 통합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것들은 가족건강성의 바탕이 되고 있다⁶⁴⁾.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은 결혼을 통한 이주로 인해 출신국과 다른 공간적, 문화적 환경에 적응해야하기 때문에, 이주국의 이질적인 사회·경제·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심리 사회적인 문제와 정신건강 상의 위기에 직면하고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상실을 경험하며 갑자기 겪는 큰 변화와 지지체계를 잃는 상실감이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가족건강성을 위협하고 있다⁶⁵⁾.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이 가족 내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가족건강과 안정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의 건강과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은 단순히 부부 사이 뿐 아니라 이들의 가족 구성원과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2) 박미희, “다문화가족 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63) 박미희, “다문화가족 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64) 박미희, “다문화가족 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65) 서대석, “양육부담과 가족건강성의 사회적지지 조절효과 -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Vol.8 No.5, 2017).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강원도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강원지역 18개 시, 군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강원지역에서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초등학교, 행복교실,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단체에 협조를 받아 진행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와 여성인력개발원의 프로그램 이용자, 초등학교 다니는 다문화학생 부모, 행복교실에서 실시하는 다문화 프로그램 이용자와 각 가정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실시되는 다문화 프로그램이 한국어 교실을 위주로 하여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한국어 수준을 고려하여 대표적으로 한국어 설문지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거주 가정은 직접 찾아가서 번역을 해주면서 함께 작성하였다. 한국어가 서툴고 입국한 지 1년 미만인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경우는 한국어 이해능력이 높은 모국의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이 모국어로 통역해서 함께 작성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부 단체의 설문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설문을 위한 협조를 받아 직접 설문지를 배포 회수하거나 방문을 통하여 설문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200부를 배포하였으나 미회수 설문지와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154부가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의 신뢰도 검증

이 연구는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 가족건강성, 자아정체감 총 3가지 척도가 있으며, 이를 위한 조사도구는 다음과 같은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7문항, 가족관계와 관련

된 가족관계 스트레스 28문항, 자아정체감 64문항, 가족건강성 34문항으로 총 문항 수는 13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신뢰성(Reliability)이란 측정대상을 여러 번 측정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어떤 지표를 구성하는 항목들 간에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⁶⁶⁾. 다중항목 척도를 사용한 측정변수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항목분석(item analysis)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항목분석 방법으로는 여러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중항목 중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어 측정도구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인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였다. Cronbach's α 계수는 0.6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⁶⁷⁾.

1) 가족관계 스트레스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가족관계 스트레스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맥커빈(McCubbinetal) 등이 개발한 FILE(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 Changes) 도구를 최동희⁶⁸⁾가 번안하여 표준화한 28문항을 가족관계 스트레스 척도로 사용하였다. 하위영역 척도 순화과정에서 남편관계 스트레스 1번 문항과 자녀관계 스트레스 17번 문항을 제거하였다. 하위영역으로 남편관계 스트레스 5문항, 자녀관계 스트레스 4문항, 시부모관계 스트레스 6문항, 건강관련 스트레스 5문항, 그리고, 경제관련 스트레스 6문항으로 5개 하위요인인 총 28 문항 중 26문항의 내용구성과 신뢰도는 <표 III-1>과 같다.

66) 박재현, “SEM(구조방정식모델)의 탐색적 연구를 이용한 근로경력 인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2008).

67) 김종일, “직업재활시설의 경영전략이 경영성파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5).

68) 최동희, “주부가 받는 스트레스와 시부모 부양 행동”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표 III-1〉 가족관계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하위요인별 구성

하위요인	문항구성	문항수	신뢰도
남편관계 스트레스	5, 10, 15, 18, 25	5	.713
자녀관계 스트레스	2, 8, 12, 23	4	.643
시부모관계 스트레스	3, 9, 13, 19, 24, 28	6	.882
건강관련 스트레스	6, 14, 21, 22, 27	5	.729
경제관련 스트레스	4, 7, 11, 16, 20, 26	6	.628

남편관계 스트레스로는 남편과의 대화와 음주, 의견 차이로 인한 부부싸움, 생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녀관계 스트레스는 자녀교육으로 인한 의견의 불일치와 자녀교육의 어려움, 자녀들 간에 다툼,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⁶⁹⁾. 시부모관계 스트레스는 시부모의 간섭과 의견의 불일치와 다른 집 며느리와의 비교, 딸과 며느리를 달리 대하는 것, 친정 나들이나 친정 식구들의 왕래로 인한 갈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관련 스트레스는 가족의 사고나 질병, 친구나 친척의 사망, 자녀들의 늦은 귀가와 육체의 피곤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관련 스트레스는 가정의 수입과 유지비, 시대 경제적 지원, 자녀 교육비, 가족의 의료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⁷⁰⁾.

각 문항의 항목 측정은 리커트식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심각하지 않다’ 1점 ‘매우 심각하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⁷¹⁾.

가족관계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도구 신뢰도는 〈표 III-1〉에서 본 바와 같이 남편관계 스트레스가 .713이고, 자녀관계 스트레스는 .643이며, 시부모관계 스트레스가 .882이고, 건강관련 스트레스는 .729이며, 경제관련 스트레스가 .629로 나타나면서 박미희(2014)의 연구에서 .90이고, 이 연구에서는 .917 이상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가족관계 스트레스

69) 박미희, “다문화가족 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70) 박미희, “다문화가족 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71) 박미희, “다문화가족 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에 대한 조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2) 자아정체감

박아청이 개발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척도를 참고하여 대상자에게 맞게 8개 문항을 번안하여 구성하였다⁷²⁾. 한국형 자아정체감 척도는 8개의 하위영역을 측정하는 총 64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매우 해당된다’ 1점, ‘조금 해당된다’ 2점, ‘어느 쪽도 아니다’ 3점, ‘별로 해당되지 않는다’ 4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5점으로 채점하는 5점 척도이다. 이 조사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은 〈표 III-2〉과 같다⁷³⁾.

〈표 III-2〉 자아정체감 측정도구의 하위요인별 구성

하위요인	문항구성	문항수	신뢰도
주체성	1, 9, 17, 25, 33, 41, 49, 57	8	.857
자기수용성	2, 10, 18, 26, 34, 42, 50, 58	8	.780
미래확신성	3, 11, 19, 27, 35, 43, 51, 59	8	.301
목표지향성	4, 12, 20, 28, 36, 44, 52, 60	8	.841
주도성	5, 13, 21, 29, 37, 45, 53, 61	8	.653
친밀성	6, 14, 22, 30, 38, 46, 54, 62	8	.734
정체감 유예	7, 15, 23, 31, 39, 47, 55, 63	8	.809
정체감 혼미	8, 16, 24, 32, 40, 48, 56, 64	8	.793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자아정체감 8개의 하위영역은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 확신성, 목표 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정체감 유예, 정체감 혼미로 각 8문항씩 64문항으로 구성되었다⁷⁴⁾. 주체성에서는 신뢰도가 .857 이상이며, 일처리 능력, 판단력, 자기생각정리, 목적 달성과 같은 스스로 판단하여 할 수 있는 일로 구성되었고, 자기 수용성에서는 신뢰도가 .780 이상이며, 존재, 가치, 희망, 절망, 무능에 대한 수용성으로 구성되었다. 미래 확신성에서는 신뢰도가 .301 이상

72) 박아청, “한국청소년의 정체감 발달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9(2), 68-78, 1996a).

73) 성하선, “의식고도화훈련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충주 : 한국교통대학교 산업대학원, 2013).

74) 이예진, “자기표현 미술수업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

이며, 장래희망에 대한 분명함으로 인생진로에 대한 삶의 목표로 구성되었고, 목표 지향성에서는 신뢰도가 .841 이상이며, 열성, 몰두, 집중, 계획, 실행 등으로 구성되었다. 주도성에서는 신뢰도가 .653 이상이며, 사회적응, 인간관계에서 주도적으로 실행 등으로 구성되었고, 친밀성에서는 신뢰도가 .734 이상이며, 구석진 곳, 낯선 사람, 불편한 마음, 두려움, 적응,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등으로 구성되었다. 정체감 유예는 신뢰도가 .809 이상이며, 부모의 영향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등으로 구성되었고, 정체감 혼미는 신뢰도가 .793 이상이며 가치관, 신념, 삶의 의미, 인생관, 확신, 의욕, 생각,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결여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 III-2〉에서 본 바와 같이 자아정체감에 대한 조사 도구의 신뢰도는 .913 이상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에 대한 조사 도구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3)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의 하위요인으로는 가족원 간의 유대,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 가족원 간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족의 가치체계 공유로 구성하였다⁷⁵⁾.

이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가족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어은주, 유영주⁷⁶⁾의 척도를 박선민⁷⁷⁾이 사용한 것으로 하였다. 하위영역으로 가족원 간의 유대 10문항으로 하고, 신뢰도는 .904 로 나타났으며,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9문항에 신뢰도는 .899로 나타났다.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6문항으로 하고 신뢰도는 .828로 나타났으며, 가족의 가치체계 공유 9문항으로 신뢰도는 .871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가족건강성의 4개 하위요인 총 34문항의 내용구성과 신뢰도는 〈표 III-3〉과 같다.

75) 이재화, “다문화가족 여성에 대한 가족생활 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2017).

76) 어은주·유영주,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5, 1995).

77) 박선민,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자본과 가족건강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표 III-3> 가족건강성 측정도구의 하위요인별 구성

하위요인	문항구성	문항수	신뢰도	
가족원 간의 유대	2,5,9,14,18,21,24,27,31,33	10	.904	.966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	1,4,8,13,17,20,23,26,30	9	.898	
가족원 간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3,6,10,15,19,28	6	.828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7,11,12,16,22,25,29,32,34	9	.871	

가족 간의 유대로는 서로를 위하는 일, 친근감, 화목함, 서로를 감싸주는 정도, 가정에 충실함, 서로 감정의 이해, 서로에 대해 충분한 관심, 힘들어하는 가족원이 다른 가족원들도 아는 정도, 서로에 대한 진실함, 애정 표현 등으로 구성하였고, 가족원간의 소통으로는 함께 대화, 서로에게 솔직함, 서로에 대한 믿음, 개인적인 문제공유, 무시하는 말, 결정할 일을 함께 의견제시, 원하는 것은 직접 요청, 서로 말을 주의 깊게 듣기,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 등으로 구성하였다. 가족원간의 문제 해결 수행능력으로는 최선의 해결책, 가족원끼리 협력, 도움 요청, 모두가 동등한 책임, 문제를 다각도 해결, 의견 차이 극복 등으로 구성되었고, 가족원간의 가치 체계 공유로는 할 일 결정, 가치관과 신념, 명확한 가치관과 규칙, 서로 존중, 옳고 그름의 일치, 생각 일치, 같은 관심사와 취미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항목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체적인 가족건강성 및 각 하위요인별 총점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III-3>에서 본 바와 같이 가족건강성에 대한 조사 도구의 신뢰도는 .966 이상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 가족건강성에 대한 조사 도구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⁷⁸⁾.

78) 박선민, “여자결혼이민자의 사회적자본과 가족건강성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11).

IV. 연구결과

1. 정규성 검정

이 연구에 측정변수는 일부분의 항목을 척도순화과정에서 제거하였으며,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여 측정변수의 표본 적절성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검정을 실시하기 위해 첫단계로 Kolmogorov-Smirnov와 Shapiro-wilk로 하였다. 측정결과 가족관계 스트레스에서 하위영역인 건강관련 스트레스($p < .200$, $p < .467$), 가족건강성에서의 하위영역인 가족원 간의 가치체계공유($p < .200$, $p < .676$),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에서는 목표지향성($p < .200$, $p < .176$)과 정체감혼미($p < .200$, $p < .280$)가 검정에 통과하였다. 하지만 항목 대부분은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나왔다. <표 IV - 1>과 같이 나타났다. Kolmogorov-Smirnov와 Shapiro-wilk 검정은 너무 엄격한 면이 있어서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 크기로 정규성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왜도와 첨도의 검정을 실시하여 정규성을 판단하였다.

<표 IV-1> 가족관계 스트레스, 가족건강성, 자아정체감의 정규성 검정

구성요인		Kolmogorov-Smirnova			Shapiro-Wilk		
		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	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
가족관계스트레스	남편관계스트레스	.089	113	.029	.967	113	.007
	자녀관계스트레스	.122	113	.000	.971	113	.016
	시부모관계스트레스	.085	113	.045	.963	113	.003
	건강관련스트레스	.069	113	.200	.989	113	.467
	경제관련스트레스	.108	113	.002	.968	113	.008
자아정체감	주체성	.096	113	.012	.932	113	.000
	자기수용성	.134	113	.000	.964	113	.004
	미래확신성	.099	113	.008	.977	113	.052
	목표지향성	.062	113	.200	.983	113	.176
	주도성	.110	113	.002	.940	113	.000
	친밀성	.087	113	.036	.984	113	.205
	정체감유예	.090	113	.024	.986	113	.292
	정체감혼미	.069	113	.200	.986	113	.280
가족건강성	가족원간의유대	.096	113	.013	.962	113	.003
	가족원간의의사소통	.088	113	.033	.967	113	.007
	가족원간의문제해결	.120	113	.000	.974	113	.024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	.064	113	.200	.991	113	.679

2. 왜도와 첨도

Kolmogorov-Smirnov와 Shapiro-wilk는 정규성을 통과하지 못하여 정규성을 검증하고자 왜도와 첨도를 실시하였다. <표 IV - 2>와 같이 정규성 검증을 하기 위해 각 변수의 첨도와 왜도를 검증한 결과이다. 왜도는 절대 값이 2미만, 첨도는 7미만의 결과로 측정모형이 정규분포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의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첨도의 절대값이 7보다 작은 경우 정규성 추정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되고 있다⁷⁹⁾.

79) 최재호, “경칩뇌파진동수련이 당뇨노인의 수면의 질, 우울, 혈당, 혈압에 미치는 영향: 한국선도의 뇌수련법 중심으로,” (국제뇌교육종합대학교대학원: 뇌교육학과, 2015).

<표 IV-2> 가족관계 스트레스, 가족건강성, 자아정체감의 왜도와 침도

구성요인		N	평균	표준 오차	왜도	표준 오차	침도	표준 오차
가 족 관 계 스 트 레 스	남편관계 스트레스	146	2.60	.074	.397	.201	-.007	.399
	자녀관계 스트레스	146	2.60	.068	.267	.201	.354	.399
	시부모관계 스트레스	141	2.46	.091	.338	.204	-.649	.406
	건강관련 스트레스	152	2.80	.076	.142	.197	-.085	.391
	경제관련 스트레스	143	2.84	.057	.205	.203	.810	.403
자 아 정 체 감	주체성	149	1.89	.066	1.092	.199	1.343	.395
	자기수용성	147	3.44	.068	-.350	.200	-.809	.397
	미래확신성	149	2.68	.041	.211	.199	.197	.395
	목표지향성	150	3.51	.071	-.158	.198	.190	.394
	주도성	146	3.31	.071	.901	.201	3.341	.399
	친밀성	146	3.32	.063	-.091	.201	-.389	.399
	정체감유예	149	3.60	.066	-.235	.199	-.220	.395
	정체감혼미	148	3.38	.066	-.307	.199	-.148	.396
가 족 건 강 성	가족원간의유대	148	3.62	.058	-.497	.199	1.653	.396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151	3.56	.060	-.412	.197	1.261	.392
	가족원간의 문제해결	151	3.65	.059	-.315	.197	.560	.392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	150	3.37	.059	-.095	.198	.371	.394

3.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일반적인 특성

1)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강원도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나이, 학력, 나라, 자녀, 거주기간, 거주지역, 수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표 IV-3>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나이는 30대가 70명(45.5%)으로 가장 많았고, 40대는 44명(28.6%)이었고, 20대와 50대는 19명(12.3%)으로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나이는 30대와 40대가 73.1%로 거의 주종을 이루었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 이상이 60명(39.0%)으로 가장 많았고, 대졸 이상이 52(33.8%), 중졸이 33명(21.4%), 초졸이 8명(5.2%), 무학이 1명(0.6%) 순으로 나타났다. 고졸 이상의 학력이 72.8%이었으며 중졸 이하의 학력은 27.2%이었다. 조사대상자의 나라는 중국 62명(40.3%)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48명(31.2%), 필리핀과 일본이 13명(8.4%), 기타 18명(11.7%)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자녀는 2명인 경우가 69명(45.1%)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가 1명인 경우가 33명(21.6%)이었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가 29명(19.0%)이었고, 기타인 경우가 2명(1.3%)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113명(73.4%)이었고, 4년 이상인 경우가 22명(14.3%)이었고, 3년 이상인 경우가 9명(5.8%)이었으며, 2년 이상 6명(3.9%)과 1년 이상 4명(2.6%)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은 강원도 18개 시, 군중에서 춘천시는 85명(55.2%)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주시는 2명(1.3%), 홍천군은 19명(12.3), 기타는 48명(31.2%)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수입은 100만 원 이상이 75명(49.0%), 200만 원 이상이 19명(12.4%), 300만 원 이상이 12명(7.8%), 무수입이 47명(30.7%)으로 나타났다.

<표 IV-3>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변인	집단	빈도(명)	구성비율(%)
나이	20-29	19	12.3
	30-39	70	45.5
	40-49	44	28.6
	50-59	19	12.3
	60세 이상	2	1.3
학력	무학	1	.6
	초졸	8	5.2
	중졸	33	21.4
	고졸	60	39.0
	대졸 이상	52	33.8
나라	필리핀	13	8.4
	베트남	48	31.2
	중국	62	40.3
	일본	13	8.4
	기타	18	11.7
자녀	없음	29	19.0
	1명	33	21.6
	2명	69	45.1
	3명	20	13.1
	기타	2	1.3
거주기간	1년 이상	4	2.6
	2년 이상	6	3.9
	3년 이상	9	5.8
	4년 이상	22	14.3
	10년 이상	113	73.4
거주지역	춘천시	85	55.2
	원주시	2	1.3
	홍천군	19	12.3
	기타	48	31.2
수입	100만 원 이상	75	49.0
	200만 원 이상	19	12.4
	300만 원 이상	12	7.8

2)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각 변수 별 집단 비교

(1)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조사대상자의 나이 별 집단 비교

강원도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나이에 따른 집단 간 F 검정 비교한 결과 <표 IV-4>와 같다. 주체성은 평균값을 비교해 볼 때 40대 이상(1.71) < 50대 이상(1.74) < 30대 이상(1.97) < 20대 이상(2.20)으로 집단 간 비교를 했을 때 20대 이상이 가장 높은 평균값으로 주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수용성에서는 50대 이상(3.75) < 40대 이상(3.65) < 30대 이상(3.27) < 20대 이상(3.25)의 순서로 집단 간 비교했을 때 20대 이상이 가장 높은 평균값으로 자기 수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족건강성의 하위영역과 가족관계 스트레스 하위영역, 자아정체감에서 정체감 유예, 친밀성, 목표 지향성, 미래 확신성, 주도성, 정체감 혼미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4>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조사대상자의 나이 별 집단 비교

변수		나이	평균	표준 편차	F 값/ 유의확률	Scheffe
자 아 정 체 감	주체성	20-29(a)	2.20	.794	2.789/.043*	-
		30-39(b)	1.97	.715		
		40-49(c)	1.71	.643		
		50-59(d)	1.74	.563		
	자기 수용성	20-29(a)	3.25	.620	4.363/.006**	-
		30-39(b)	3.27	.725		
		40-49(c)	3.65	.701		
		50-59(d)	3.75	.651		

* $p < 0.05$ ** $p < 0.01$

주: 20대 = a, 30대 = b, 40대 = c, 50대 = d,

(2)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조사대상자의 학력별 집단 비교

강원도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학력에 따른 집단간 비교는 <표 IV-5>와 같다. 가족원간의 유대는 초졸 이상(3.11)< 고졸 이상(3.55)< 중졸 이상(3.72)< 대졸 이상(3.75)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에서는 초졸 이상(3.24)< 고졸 이상(3.42)< 중졸 이상(3.68)< 대졸 이상(3.72)의 순서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족원간의 문제해결은 초졸 이상(3.35)< 고졸 이상(3.15)< 중졸 이상(3.73)< 대졸 이상(3.82)의 순서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주체성은 대졸 이상(1.69)< 고졸 이상(1.87)< 중졸 이상(2.11)< 초졸 이상(2.44)의 순서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자기 수용성은 고졸 이상(3.30)< 중졸 이상(3.35)< 초졸 이상(3.44)< 대졸 이상(3.70)의 순서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미래 확신성은 대졸 이상(2.64)< 고졸 이상(2.65)< 중졸 이상(2.75)< 초졸 이상(2.86)의 순서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자기 수용성은 고졸 이상(3.31)< 중졸 이상(3.37)< 초졸 이상(3.41)< 대졸 이상(3.84)의 순서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주도성은 중졸 이상(3.06)< 고졸 이상(3.18)< 초졸 이상(3.45)< 대졸 이상(3.59)의 순서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친밀성은 고졸 이상(3.11)< 중졸 이상(3.34)< 초졸 이상(3.48)< 대졸 이상(3.53)의 순서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정체감 유예는 중졸 이상(3.33)< 고졸 이상(3.48)< 초졸 이상(3.50)< 대졸 이상(3.92)의 순서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정체감 혼미는 고졸 이상(3.24)< 중졸 이상(3.25)< 초졸 이상(3.34)< 대졸 이상(3.65)의 순서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족건강성에서 가족원간의 가치와 가족관계 스트레스에서 건강관련 스트레스와 시부모관계 스트레스, 남편관계 스트레스, 자녀관계 스트레스와 경제관련 스트레스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고 전체적으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IV-5>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학력 별 집단 비교

변수	학력	평균	표준 편차	F 값/ 유의확률	Scheffe
가족원 간의 유대	초졸(a)	3.11	.987	3.330/.021*	a<b,c<d
	중졸(b)	3.72	.594		
	고졸(c)	3.55	.559		
	대졸 이상(d)	3.75	.602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	초졸(a)	3.24	1.066	3.176/.026*	-
	중졸(b)	3.68	.647		
	고졸(c)	3.42	.535		
	대졸 이상(d)	3.72	.615		
가족원 간의 문제해결	초졸(a)	3.35	1.022	3.340/.021*	-
	중졸(b)	3.73	.602		
	고졸(c)	3.51	.526		
	대졸 이상(d)	3.82	.580		
주체성	초졸(a)	2.44	1.142	4.589/.004**	b<c,d<a
	중졸(b)	2.11	.714		
	고졸(c)	1.87	.592		
	대졸이상(d)	1.69	.639		
자기 수용성	초졸(a)	3.44	.897	3.213/.025*	-
	중졸(b)	3.35	.684		
	고졸(c)	3.30	.725		
	대졸 이상(d)	3.70	.646		
미래 확산성	초졸(a)	2.86	.366	3.943/.025*	-
	중졸(b)	2.75	.517		
	고졸(c)	2.65	.433		
	대졸이상(d)	2.64	.444		
목표 지향성	초졸(a)	3.41	1.195	5.502/.001**	-
	중졸(b)	3.37	.665		
	고졸(c)	3.31	.585		
	대졸 이상(d)	3.84	.780		
주도성	초졸(a)	3.45	.958	4.578/.001**	-
	중졸(b)	3.06	.654		
	고졸(c)	3.18	.754		
	대졸이상(d)	3.59	.645		
친밀성	초졸(a)	3.48	.961	4.315/.006**	-
	중졸(b)	3.34	.687		
	고졸(c)	3.11	.552		
	대졸 이상(d)	3.53	.572		
정체감 유예	초졸(a)	3.50	1.069	6.510/.000***	b<c,a<d
	중졸(b)	3.33	.536		

	고졸(c)	3.48	.619		
	대졸 이상(d)	3.92	.670		
정체감 혼미	초졸(a)	3.34	1.060	3.921/.010**	-
	중졸(b)	3.25	.599		
	고졸(c)	3.24	.655		
	대졸 이상(d)	3.65	.649		

* $p<0.05$ ** $p<0.01$ *** $p<0.000$

주: 초졸 = a, 중졸 = b, 고졸 = c, 대졸 이상 = d,

(3)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조사대상자의 자녀별 집단 비교

강원도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자녀에 따른 집단간 비교는 <표 IV-6>과 같다. 자녀 관계 스트레스는 없음(2.03)<1명(2.45)<기타(2.25)<2명(2.75)<3명(2.98)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경제관련 스트레스는 없음(2.49)<2명(2.90)<1명(2.94)<3명(2.98)<기타(3.16)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족관계 스트레스 총합은 없음(2.23)< 1명(2.66)<2명(2.72)<기타(2.70)<3명(2.89)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목표 지향성은 없음(3.38)<1명(3.43)<2명(3.45)< 기타(3.81)<3명(3.99)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정체감 유예는 1명(3.46)<2명(3.51)<없음(3.60)< 3명(4.07)<기타(4.62)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정체감 혼미는 2명(3.38)< 없음(3.36)<1명(3.38)<3명(3.80)<기타(4.25)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은 없음(2.18)<1명(2.23)<2명(2.26)<3명(2.47)<기타(2.23)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족건강성에서 가족원 간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 가족원 간의 유대, 가족원 간의 가치, 가족건강성 총합 전체, 가족관계 스트레스에서 남편관계 스트레스, 자녀관계 스트레스, 시부모관계 스트레스, 건강관련 스트레스, 경제관련 스트레스, 가족관계 스트레스 총합과 자아정체감에서 친밀성, 자기 수용성, 미래 확신성, 주체성, 주도성, 자아정체감 총합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6>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자녀별 집단 비교

변수	자녀	평균	표준 편차	F값/ 유의 확률	Scheffe
자녀관계 스트레스	없음(a)	2.03	.850	6.370/.000***	-
	1명(b)	2.45	.577		
	2명(c)	2.75	.722		
	3명(d)	2.98	.666		
	기타(e)	2.50	.353		
경제관련 스트레스	없음(a)	2.49	.754	2.491/.046*	-
	1명(b)	2.94	.517		
	2명(c)	2.90	.579		
	3명(d)	2.95	.706		
	기타(e)	3.16	1.414		
목표 지향성	없음(a)	3.38	.797	2.604/.038*	-
	1명(b)	3.43	.736		
	2명(c)	3.45	.720		
	3명(d)	3.99	.693		
	기타(e)	3.81	.441		
정체감 유예	없음(a)	3.60	.667	4.246/.003**	b<c,a,d< e
	1명(b)	3.46	.601		
	2명(c)	3.51	.708		
	3명(d)	4.07	.582		
	기타(e)	4.62	.530		
정체감 혼미	없음(a)	3.36	.631	3.402/.011*	-
	1명(b)	3.38	.622		
	2명(c)	3.25	.699		
	3명(d)	3.80	.721		
	기타(e)	4.25	.353		

* $p<0.05$ ** $p<0.01$ *** $p<0.000$

주: 없음 = a, 1명 = b, 2명 = c, 3명 = d, 기타 = e

(4)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조사대상자의 거주기간별 집단 비교

강원도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거주기간에 따른 집단간 비교는 <표 IV-7>과 같다. 남편관계 스트레스는 1년 이상(1.75) < 10년 이상(2.53) < 4년 이상(2.84) < 2년 이상(3.00) < 3년 이상(3.02)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경제관련 스트레스는 1년 이상(2.20) < 10년 이상(2.79) < 4년 이상(3.04) < 3년 이상(3.12) < 2년 이상(3.16)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족관계 스트레스 총합은 1년 이상(1.73) < 10년 이상(2.60) < 3년 이상(2.84) < 4년 이상(2.87) < 2년 이상(2.91)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족원간의 유대는 2년 이상(3.00) < 3년 이상(3.38) < 4년 이상(3.46) < 10년 이상(3.68) < 1년 이상(4.27)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은 2년 이상(3.18) < 4년 이상(3.30) < 3년 이상(3.48) < 10년 이상(3.62) < 1년 이상(4.13)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는 2년 이상(3.01) < 4년 이상(3.11) < 3년 이상(3.40) < 10년 이상(3.42) < 1년 이상(3.91)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족건강성 총합은 2년 이상(3.12) < 4년 이상(3.33) < 3년 이상(3.38) < 10년 이상(3.62) < 1년 이상(4.10)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주체성은 1년 이상(1.37) < 10년 이상(1.76) < 4년 이상(2.19) < 3년 이상(2.34) < 2년 이상(2.93)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미래 확신성은 1년 이상(2.34) < 10년 이상(2.63) < 4년 이상(2.83) < 3년 이상(2.93) < 2년 이상(3.06)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족건강성에서 가족원 간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족원 간의 가치, 가족관계 스트레스에서 자녀관계 스트레스, 시부모관계 스트레스, 건강관련 스트레스, 자아정체감에서 자기 수용성, 목표 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정체감 유예, 정체감 혼미, 자아정체감 총합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7>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거주기간별 집단 비교

변수	거주기간	평균	표준 편차	F 값/ 유의확률	Scheffe
남편관계 스트레스	1년이상(a)	1.75	.412	3.006/.020*	a,e<d,b,c
	2년이상(b)	3.00	1.173		
	3년이상(c)	3.02	.720		
	4년이상(d)	2.84	.684		
	10년이상(e)	2.53	.771		
경제관련 스트레스	1년이상(a)	2.20	.284	2.547/.042*	a,e,d,c<b
	2년이상(b)	3.16	.942		
	3년이상(c)	3.12	.627		
	4년이상(d)	3.04	.418		
	10년이상(e)	2.79	.648		
가족원 간의 유대	1년이상(a)	4.27	.585	3.728/.006* *	b<c,d,e<a
	2년이상(b)	3.00	1.133		
	3년이상(c)	3.38	.538		
	4년이상(d)	3.46	.485		
	10년이상(e)	3.68	.594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	1년이상(a)	4.13	.457	2.581/.040*	b<d,c,e<a
	2년이상(b)	3.18	1.168		
	3년이상(c)	3.48	.724		
	4년이상(d)	3.30	.629		
	10년이상(e)	3.62	.585		
가족원 간의 가치체계공유	1년이상(a)	3.91	.246	2.518/.044*	NO
	2년이상(b)	3.01	1.131		
	3년이상(c)	3.40	.684		
	4년이상(d)	3.11	.563		
	10년이상(e)	3.42	.573		
주체성	1년이상(a)	1.37	.595	8.024/.000* **	a<e,d,c<b
	2년이상(b)	2.93	1.182		
	3년이상(c)	2.34	.898		
	4년이상(d)	2.19	.615		
	10년이상(e)	1.76	.585		
미래 확신성	1년이상(a)	2.34	.425	3.412/.011*	a<e,d,c<b
	2년이상(b)	3.06	.479		
	3년이상(c)	2.93	.619		
	4년이상(d)	2.83	.369		
	10년이상(e)	2.63	.433		

* $p<0.05$ ** $p<0.01$ *** $p<0.000$

주: 1년 이상= a, 2년 이상= b, 3년 이상= c, 4년 이상= d, 10년 이상= e

(5)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조사대상자의 수입 별 집단 비교

강원도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수입에 따른 집단간 비교는 <표 IV-8>와 같다. 건강관련 스트레스는 300만 원 이상(2.21)< 무수입(2.67)< 200만 원 이상(2.74)< 100만 원 이상(3.00)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주체성은 300만 원 이상(1.44)< 100만 원 이상(1.81)< 200만 원 이상(1.84)< 무수입(2.16)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정체감 유예는 무수입(3.34)< 100만 원 이상(3.65)< 200만 원 이상(3.78)< 300만 원 이상(3.98)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정체감 혼미는 무수입(3.17)< 100만 원 이상(3.44)< 200만 원 이상(3.45)< 300만 원 이상(3.77)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족건강성에서 가족원 간의 유대, 가족원 간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 가족원 간의 가치, 가족건강성 총합 전체, 가족관계 스트레스에서 남편관계 스트레스, 자녀관계 스트레스, 시부모관계 스트레스, 경제관련 스트레스, 가족관계 스트레스 총합과 자아정체감에서 미래 확신성, 자기 수용성, 친밀성, 목표 지향성, 주도성, 자아정체감 총합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8>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수입별 집단 비교

변수	수입	평균	표준 편차	$F_{값}/$ 유의확률	Scheffe
건강관련 스트레스	100만 원 이상(a)	3.00	.795	4.087/.008**	c<d,b,a
	200만 원 이상(b)	2.74	.662		
	300만 원 이상(c)	2.21	.562		
	무수입(d)	2.67	.941		
주체성	100만 원 이상(a)	1.81	.600	4.404/.005**	c<a,b<d
	200만 원 이상(b)	1.84	.809		
	300만 원 이상(c)	1.44	.346		
	무수입(d)	2.16	.776		
정체감 유예	100만 원 이상(a)	3.65	.670	3.882/.011*	d<a,b<c
	200만 원 이상(b)	3.78	.605		
	300만 원 이상(c)	3.98	.627		
	무수입(d)	3.34	.711		
정체감 혼미	100만 원 이상(a)	3.44	.682	2.950/.035*	d<a,b<c
	200만 원 이상(b)	3.45	.588		
	300만 원 이상(c)	3.77	.446		
	무수입(d)	3.17	.746		

* $p<0.05$ ** $p<0.01$ *** $p<0.000$

주: 100만 이상 = a, 200만 이상 = b, 300만 이상 = c, 무수입 = d

4. 가족관계 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1)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⁸⁰⁾

(1)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총합에 미치는 영향

〈표 IV-9〉와 같이 강원도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한 결과이다. 독립변수인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24.6%로 나타났으며, 이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관련 스트레스($\beta = .405$)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남편관계 스트레스($\beta = -.290$)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p < 0.05$). 즉, 경제관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남편관계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가족건강성은 높게 나타났다⁸¹⁾.

80) 박미희, “다문화가족 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81) 박미희, “다문화가족 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표 IV-9>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 총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값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β		
가족 건강성 총합	(상수)	4.089	.242		16.884	.000
	남편관계 스트레스	-.224	.143	-.290	-1.569	.119
	자녀관계 스트레스	.079	.139	.098	.566	.572
	건강관계 스트레스	.129	.118	.172	1.090	.278
	경제관계 스트레스	.390	.157	.405	2.487	.014*
	가족관계 스트레스 총합	-.619	.399	-.665	-1.551	.124
$R^2 = .246$, F 변화량= 7.702, $p = .000$, Durbin-Watson= 2.009						

* $p < 0.05$

(2)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원 간의 유대에 미치는 영향

〈표 IV-10〉은 강원도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원 간의 유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한 결과이다. 독립변수인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 중 가족원 간의 유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본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21.9%로 나타났으며, 이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관련 스트레스($\beta = .367$)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남편관계 스트레스($\beta = -.372$)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가족관계 스트레스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p < 0.05$)⁸²⁾. 즉, 경제관련 스트레스와 남편관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가족원 간의 유대관계는 높게 나타났다.

<표 IV-10>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원 간의 유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β		
가족원 간의 유대	(상수)	4.093	.259		15.794	.000
	남편관계 스트레스	-.302	.146	-.372	-2.066	.041*
	자녀관계 스트레스	.023	.143	.027	.160	.873
	건강관계 스트레스	.095	.120	.119	.795	.428
	경제관계 스트레스	.375	.167	.367	2.245	.027*
	가족관계 스트레스	-.412	.404	-.417	-1.021	.309
	총합					
$R^2 = .219$, F변화량 = 6.735, $p = .000$, Durbin -Watson = 1.898						

* $p < 0.05$

82) 박미희, “다문화가족 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3)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강원도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IV-11>과 같다. 독립변수인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 중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증해본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19.6%로 나타났으며, 이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련 스트레스($\beta = .373$)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경제관련 스트레스($\beta = .525$)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가족관계 스트레스 총합($\beta = -1.029$)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남편관계 스트레스($\beta = -.111$)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05$). 즉, 경제관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남편관계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은 높게 나타났다⁸³⁾.

<표 IV-11>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상수)	3.719	.262		14.176	.000
	남편관계 스트레스	-.091	.151	-.111	-.603	.548
	자녀관계 스트레스	.160	.148	.184	1.084	.280
	건강관계 스트레스	.300	.123	.373	2.436	.016*
	경제관계 스트레스	.541	.173	.525	3.129	.002*
	가족관계 스트레스 총합	-1.025	.418	-1.029	-2.450	.016*

$R^2 = .196$, F변화량 = 6.016, $p = .000$, Durbin - Watson = 2.051

* $p < 0.05$

83) 박미희, “다문화가족 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4)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원 간의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강원도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원 간의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IV-12>와 같다. 독립변수인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 중 가족원간의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설명력은 24.0%로 나타났으며, 이 모형의 유의미한 적합도가 나타났다. 경제관련 스트레스($\beta = .447$)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남편관계 스트레스($\beta = -.294$)는 부(-)의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남편관계 스트레스가 낮을 수록, 경제관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족원 간의 문제해결은 높게 나타났다.

<표 IV-12>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원 간의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값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β		
가족원간의 문제해결	(상수)	4.137	.245		16.862	.000
	남편관계 스트레스	-.232	.142	-.294	-1.640	.104
	자녀관계 스트레스	.015	.138	.018	.111	.912
	건강관계 스트레스	.138	.115	.180	1.203	.231
	경제관계 스트레스	.443	.162	.447	2.741	.007*
	가족관계 스트레스 총합	-.589	.392	-.616	-1.503	.135
$R^2 = .240$, F변화량 = 7.709, $p = .000$, Durbin - Watson = 1.925						

* $p < 0.05$

2) 자아정체감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1) 자아정체감이 가족원 간의 유대에 미치는 영향

강원도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자아정체감이 가족원 간의 유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IV-13>과 같다. 독립변수인 자아정체감이 가족건강성 중 가족원 간의 유대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설명력은 24.4%로 나타났고, 적합도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주체성($\beta = .015$)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미래 확신성($\beta = -.305$)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통계상에서 분석한 결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즉, 미래 확신성이 높을수록, 가족건강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가족원 간의 유대관계는 높게 나타났다.

<표 IV-13> 자아정체감이 가족원 간의 유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β		
가족원간 의 유대	(상수)	3.405	.449		7.588	.000
	주체성	.014	.162	.015	.086	.931
	자기 수용성	-.094	.185	-.107	-.506	.613
	미래 확신성	-.434	.208	-.305	-2.081	.040*
	주도성	-.040	.089	-.046	-.443	.658
	친밀성	.310	.183	.321	1.693	.093
	정체감 유예	.298	.151	.331	1.969	.051
	정체감 혼미	-.047	.220	-.052	-.215	.830
	자아정체감 총합	-.051	1.004	-.025	-.051	.959
	$R^2 = .244$, F변화량 = 4.882, $p = .000$, Durbin-Watson = 1.782					

* $p < 0.05$

(2) 자아정체감이 가족원간의 가치체계에 미치는 영향

강원도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자아정체감이 가족원 간의 가치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IV-14>와 같다.

독립변수인 자아정체감이 가족건강성 중 가족원 간의 가치체계 공유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는 설명력은 19.8%로 나타났으며, 이 모형의 유의미한 적합도가 나타났다. 주체성($\beta = .188$)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미래 혁신성($\beta = -.311$)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p < 0.05$). 즉, 미래 혁신성이 높을수록, 가족건강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는 높게 나타났다.

<표 IV-14> 자아정체감이 가족원 간의 가치체계 공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값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β		
가족원 간의 가치체계 공유	(상수)	2.757	.428		6.438	.000
	주체성	.165	.167	.188	.987	.326
	자기 수용성	-.233	.190	-.269	-1.230	.221
	미래 혁신성	-.434	.218	-.311	-1.995	.048*
	주도성	-.041	.091	-.048	-.448	.655
	친밀성	.246	.190	.257	1.292	.199
	정체감 유예	.233	.154	.261	1.515	.132
	정체감 혼미	.234	.226	.260	1.033	.303
	자아정체감 총합	-.017	1.033	-.008	-.016	.987
$R^2 = .198$, F변화량 = 3.768, $p = .000$, Durbin-Watson = 1.882						

* $p < 0.05$

5. 연구모형의 가설검증

이 연구에서 가설을 검증한 결과, 강원도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전체 가족건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연구가설 H1이 검증되었으며,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자아정체감이 가족건강성의 가족원 간의 유대와 가족 간의 가치체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H2도 검증되었다. <표Ⅳ-15>

<표Ⅳ-15> 연구모형의 가설검증 결과

가설	가설문	가설검증
H1	강원도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는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검증
H2	강원도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자아정체성은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검증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강원도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강원지역 18개 시, 군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가족관계 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강원도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인구학적 특성을 강원지역 18개 시, 군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으로 나이는 30대가 (45.5%), 학력은 고졸 이상 (39.0%), 나라는 중국 (40.3%), 거주기간은 10년 이상 (73.4%), 수입은 100만 원 이상 (49.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희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고졸로 133명(37.6%)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20대의 나이가 157명(44.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3년 미만의 거주기간으로 84명(23.7%)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거주 나라로 142명(40.1%)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순자, 박용순, 송진영⁸⁴⁾연구에 따르면 나이는 30세 이상 39세 미만이 113명(49.1%), 국적은 중국(33.1%),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105명(45.7%)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60% 이상의 결혼이주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기간은 5년 미만이 143명(62.2%)으로 분포되었다.

이 연구와 비교한 결과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으로 학력이 고졸 이상, 나라가 중국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나이는 20대와 30대로 다르게 나타났고, 거주기간은 10년 이상과 1년 이상~5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2.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각 변수별 집단 비교

강원도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각 변수 별 집단 비교결과 아래와 같이 5가지

84) 이순자·박용순·송진영,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0(4), 1-25, 2014.

부류로 분석한 것이다.

강원도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나이에 따른 집단 간 F 검정 값을 비교한 결과 20대 이상이 가장 높은 평균값으로 주체성($F=2.789$, $p<.043$)과 자기 수용성($F=4.363$, $p<.006$)이 가장 높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각 변수 별 집단 비교 결과 나이가 20대 이상이 가장 높은 평균값으로 주체성과 자기 수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강원도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학력에 따른 집단 비교결과는 전체적으로 대졸 이상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가족원 간의 유대($F=3.330$, $p<.021$),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F=3.176$, $p<.026$), 가족원 간의 문제해결($F=3.340$, $p<.021$), 자기 수용성($F=3.213$, $p<.025$), 목표 지향성($F=5.502$, $p<.001$), 주도성($F=4.578$, $p<.001$), 친밀성($F=4.315$, $p<.006$), 정체감 유예($F=6.510$, $p<.000$), 정체감 혼미($F=3.921$, $p<.010$), 자아정체감($F=4.032$, $p<.009$), 주체성($F=4.589$, $p<.004$), 미래 확신성($F=3.943$, $p<.025$)은 초졸 이상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학력에 따른 집단 비교에서는 전체적으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대졸 이상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강원도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자녀에 따른 집단 F 검정 값을 비교결과는 자녀 관계 스트레스($F=6.370$, $p<.000$), 경제관련 스트레스($F=2.491$, $p<.046$), 목표 지향성($F=2.604$, $p<.038$), 정체감 유예($F=4.246$, $p<.003$), 정체감 혼미($F=3.402$, $p<.011$)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자녀는 자녀관계 스트레스, 경제관련 스트레스, 목표 지향성, 정체감 유예, 정체감 혼미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자녀는 2명 이상이 가장 많았다.

강원도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거주기간에 따른 집단 비교는 남편관계 스트레스($F=3.006$, $p<.020$), 경제관련 스트레스($F=2.547$, $p<.042$), 가족원 간의 유대($F=3.728$, $p<.006$), 가족원 간의 가치체계공유($F=2.581$, $p<.040$), 가족원 간의 가치체계공유($F=2.518$, $p<.044$), 주체성($F=8.024$, $p<.000$), 미래 확신성($F=3.412$, $p<.011$)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가족원 간의 가치체계공유, 남편관계 스트레스, 가족원 간의 유대, 경제관련 스트레스,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 주체성, 미래 확신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거주기간은 10년 이상이 가장 많았다.

강원도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수입에 따른 집단 F 검정 값을 비교결과는 건강

관련 스트레스($F=4.087$, $p<.008$), 주체성($F=4.404$, $p<.005$), 정체감 유예($F=3.882$, $p<.011$), 정체감 혼미($F=2.950$, $p<.035$)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수입은 건강관련 스트레스, 주체성, 정체감 유예, 정체감 혼미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으며, 100만 원 이상이 가장 많았다.

박미희 연구에서 학력에 따른 집단을 비교한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향상된 것이 아니라 학력과 무관하게 가족건강성이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학력에 따른 집단 비교에서 대졸 이상이 가족건강성은 항상적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박미희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3.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t 값과 유의확율은 경제관련 스트레스($t=2.487$, $p<.014$)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한 결과 경제관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남편관계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가족건강성은 높게 나타났다.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원 간의 유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t 값과 유의확율은 남편관계 스트레스($t=-2.066$, $p<.041$), 경제관련 스트레스($t=2.245$, $p<.027$)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족원 간의 유대관계는 경제관련 스트레스와 남편관계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t 값과 유의확율은 경제관련 스트레스($t=3.129$, $p<.002$)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은 경제관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남편관계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원 간의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t 값과 유의확율은 경제관련 스트레스($t=2.741$, $p<.007$)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족원 간의 문제해결은 경제관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남편관계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미루어 볼 때 가족관계 스트레스 중 경제관련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가장 큰 변인임을 알 수가 있었다. 경제관련 스트레스는 주로 생활 유지비, 경제적 지원, 자녀교육, 의료비가 속하는 부분으로써 수입이 줄어들면서 스트레스

가 많이 쌓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가족원 간의 유대관계와 의사소통, 문제해결 자체가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10년 이상 거주하면서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수입구조를 확인해 본바 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는 생활 유지비, 경제적 지원, 자녀교육, 의료비에 보태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고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면 양육비에도 상당한 유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비 다문화가족 여성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출산 후에는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보다 재취업확률이 높고 유리한 면이 있다. 특히 강원지역의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의 취업률이 더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언어소통과 지역 특성이다. 대부분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거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정주부가 주종을 이루었다. 언어소통이 원활할 경우를 가정하에 취업이 된다고 해도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에 불과하다고 추정한다.

박미희 연구에서 남편관계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경제관련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가족 간의 유대관계는 높게 나타났다. 가족 간의 의사소통은 높을수록 남편관계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와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이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전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을 때 가족건강성에 중요한 요인은 경제관련 스트레스임을 밝혀졌다. 이는 박미희의 연구와 일치하는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청소년, 도시 부부, 농촌 가족의 가족건강성을 측정한 선행연구 강수정 연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경자, 김연수⁸⁵⁾ 연구에서 경제문제가 부부와 가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라고 주목하였다. Conger와 그 동료들이 발전시킨 가족 스트레스 모형에서 경제적 스트레스가 배우자에 느끼는 정서적 고통을 느끼고, 그런 심리적 고통은 부부간에 역기능적 갈등 반응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결혼의 안정성을 침해한다. 가족 스트레스에서 경제적 스트레스는 미국의 중산층 및 농촌 지역 백인과 흑인 가족, 도시 근로 가족, 유럽인 가족, 한국의 중산층 및 저소득층 부부 모두 적용되어 경제압박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제적 스트레스는 사회계층이나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자아정체감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아정체감이 가족원간의 유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t 값과 유의확

85) 현경자, 김연수,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4), 653-677, 2012.

율은 미래 확신성(-2.081, $p < .040$)이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자아정체감이 가족원 간의 가치체계 공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t 값과 유의확율은 미래 확신성(-1.995, $p < .048$)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미래 확신성은 앞으로의 기대, 계획, 장래희망에 대한 분명함으로 인생진로에 대한 삶의 목표로 구성되었다. 미래 확신성이 낮으면 가족원 간의 유대로 가족원 간에 서로 감싸주지 못하고, 서로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가질 수 없다. 가족원 간의 가치체계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생각의 불일치로 같은 관심사와 취미는 생각도 할 수 없게 되어 건강한 가족을 꾸려나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강원도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가치체계 공유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일수록 미래 확신성에 대해 더 낮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타국에서 생활하면서 직업을 구하고 적응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잘할 수 있는 자신감도 떨어지고 개인적인 확신성이 떨어져 가족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어 더 나아가 국가 전체의 기반이 흐려진다. 다문화사회에 접어든 한국으로서는 비상이 될 수도 있다. 한국에 살면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현실이 앞날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 연구를 미루어 볼 때 자아정체감 중 미래 확신성이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에게 굳건히 하지 않으면 다문화가족이 무너지고 다문화가족이 무너지면 다문화사회에 들어간 국가가 흔들리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면 국가에서 프로그램 개발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고 꿈과 희망과 목표를 향한 미래 확신성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는 결론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김경화⁸⁶⁾연구에서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 양호한 편이나 한국 주부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점수를 보이므로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 같다. 가족건강성에 두 번째 영향 변인이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으므로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86) 김경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스트레스와 대처, 가족건강성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4. 제한점 및 제언

이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이 연구는 강원도의 일부 지역만을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대상모집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대상모집 방법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특성을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지역을 강원도 전체 또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의 척도는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을 위한 표준화된 척도가 아니므로, 앞으로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 가족건강성 연구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척도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강원도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이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정체감의 중요성을 함의하고 있으며 이것은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에 대한 실천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제언한다.

첫째,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에 대한 가족관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건강성을 위한 효과적인 자아정체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족건강성을 위한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 나은 프로그램이 되려면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 작업을 통해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발전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차후 프로그램의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질적으로 향상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양옥경 외 역, 『사회복지와 탄력성』. (서울: 도서출판 나눔의 집, 2009.)

박아청, 『아이덴티티의 탐색Ⅱ』,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5.)

_____, 『청년과 아이덴티티』, (서울: 배영사, 1996b.)

_____, 『사춘기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2000.)

_____, 『정체감 연구의 전망과 과제』, (서울: 학지사, 2003b.)

2. 논문

강수정, “농촌생활개선회원들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 연구,” 경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강현옥, “여성결혼이민자가 인지하는 가족 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0 No.31, 2009.

강희경, “가족의 건강성과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Vol.23 No.3, 2005.

김경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스트레스와 대처, 가족건강성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김명소, 김지경 (2003). “한국인의 관계적 자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 314-315, 2003.

김순기·유영주, “기혼자녀가 지각하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이 결혼 후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43-64, 2001.

김순규 · 이주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과 사회적 지지가 한국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5권 1호, 5-20, 2010.

김오남,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문화적응스트

- 레스와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2(3): 47-73, 2007.
- 김종일, “직업재활시설의 경영전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5.
- 김현실,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정신간호학회지, 20(2): 188-198, 2011.
- 김혜신, “결혼이주여성 and 한국인 남성 부부의 가족건강성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노주영, “고등학교 2학년 미술수업에서 UCC 스토리텔링을 통한 자기표현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박미희, “다문화가족의 가족건강성과 복지경영의 과제와 전망,” 한국복지경영학, 학술발표자료집, 2012.
- _____, “다문화가족 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박선민,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자본과 가족건강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박아청,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996.
- _____, “한국청소년의 정체감 발달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9(2): 68-78, 1996a.
- _____, “청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단계의 특성분석,” 교육심리연구, 18(1) 301-312, 2004.
- 박연희,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요인 연구-가족관계 스트레스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변외진, 김춘경, “내적가족체계치료 프로그램이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 증진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5), 47-63, 2007.
- 박정훈, “자아정체성 개념으로 본 독거노인의 주의식과 주거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Vol.27 No.10,, 2011.
- 박재현, “SEM(구조방정식모델)의 탐색적 연구를 이용한 근로경력 인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2008.
- 서대석, “양육부담과 가족건강성의 사회적지지 조절효과 -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Vol.8 No.5, 2017.
- 서해정,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의 질과 결혼안정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7.
- 성하선, “의식고도화훈련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통대학교 생산대학원. 경영공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 송현옥,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간의 구조분석,”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양철호 · 김자 · 양선화 · 신동 · 조지,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6, 127-149, 2003.
- 오근희, “수영 스포츠 참여자 중독과 심리적 웰빙의 관계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Vol.49 No.6, 2010.
- 유영주,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복지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가족생활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45-63. 1991.
- _____,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개발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9권 2호, 119-151, 2004.
- 윤경희, “다문화가정의 사회문제요인 탐색을 통한 경찰의 대응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이순자 · 박용순 · 송진영,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0(4), 1-25, 2014.
- 이선정, “대학생의 가족건강성 및 관련 변인이 부모됨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Vol.14 No.1, 2009.
- 이유경,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분화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이재화, “다문화가정 여성의 가족관계스트레스에 따른 사회적 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_____, “다문화가족 여성에 대한 가족생활 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 이주재 · 김순규, “결혼이민 여성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족복지학회, 제30권, 299-322, 2010.
- 이지영,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 스트레스가 자녀의 부적

- 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기능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이화영, “공감, 자아존중감, 성격특성과 친사회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국제뇌교육종합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이태희, “다문화가족 자녀가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자본을 조절변수로,”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보장정책전공, 2015.
- 전서영, “기혼 남녀의 일-가족 갈등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Vol.12 No.3,, 2008.
- 최 미, “국내 다문화 상담 연구 동향: 학술지 및 학위 논문 분석,” 상담학연구, Vol.17 No.5, 2016.
- 최재호, “경침뇌파진동수련이 당뇨노인의 수면의 질, 우울, 혈당, 혈압에 미치는 영향,” 국제뇌교육종합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통계청, 다문화인구동태 통계, 2017, 『인구총조사』, 2019.
- 황향희, “다문화가정 여가교육스쿨을 통한 자아정체감 연구,”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4(4), 59-72, 2010.
- 현경자, 김연수,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4), 653-677, 2012.
- 홍미기,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부 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와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 홍미송, “중국동포 초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인식의 관계,” 고려사이버대 융합정보대학원 석사논문, 교육종합연구, 2018, Vol. 16, No. 2, 69-91, 74p, 2017.
- Casas, C, Stinnet, N, DeFrain, J, William, R, & Lee, P, “Latin American family functioning,” *Family perspectives*, 18, 1984.
- Defrain, J, “Qualities of strong families around the world,” 경희가족상담·교육센터 해외석학청특별강연회 자료집, 2003.
- Erikson, E. H,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W.Norton & Company, 1968.
- Hovey, J. D. and C. G. Magana, “Acculturative stress, anxiety, and depression among Mexican immigrant farmworkers in the Midwest United States,” *Journal of Immigrant Health*, 2(3) , 83-102, 2000.
- Hill, R, “*Families under stress*,” New Work: Harper & Brothers, 1949.

- McCubbin & Patterson, *"The family stress process: The double ABC-X model of adjustment and adaption."* In H. I. McCubbin, M. B. Sussman & J. M. Patterson(eds). *Social stress and the family: Advances and developments in family stress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Haworth Press, 1983
- Lazarus, R.S. & Folkman, S, *"Stress. Appraisal. Coping,"* New York. Springer Pub. Co, 1984
- Olson, D.H. & McCubbin, H.W, *"Families: What Makes Them Work Beverly Hills,"* CA: Sage, 1983.
- Trivette, Carol M & Dunst, CarlJ, "Assessing family strengths and family functioning style, Topics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0:16-35, 1990.

3. 신문

손해용, "출생아 중 다문화 가구 자녀 비중 첫 5% 넘어," 『중앙일보』, 2018.11.23

〈부록1〉 한국어 설문지

〈한국어 설문지〉

다문화가족에 대한 설문지

본 설문은 귀하의 이름을 밝히지 않도록 하였으며,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7조에 의해 개인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학술적 목적을 위한 통계분석 자료로만 이용될 뿐, 어떠한 불이익도 따르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응답은 본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와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6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지구경영학과
지도교수 서 호 찬
연구자 손 은 영

☞ 필요한 경우 () 안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기타(세)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기타()

① 필리핀 ② 베트남 ③ 중국 ④ 일본 ⑤ 기타()

① 없음 ② 1명 ③ 2명 ④ 3명 이상 ⑤ 기타()

① 1년 이상 ② 2년 이상 ③ 3년 이상 ④ 4년 이상 ⑤ 기타(년)

① 춘천시 ② 원주시 ③ 화천군 ④ 홍천군 ⑤ 기타 시, 군 ()

① 100만원 이상 ② 200만원 이상 ③ 300만원 이상 ④ 기타()

Ⅱ.다음은 가족관계 스트레스에 한 질문입니다. 귀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 표 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심각 하지 않다	심각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심각 하다	매우 심각 하다
1	남편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들에게 교육관계에 대해 자녀들과 의견이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졌다.	①	②	③	④	⑤
3	시부모님이 내가하는 일에 참견, 간섭하 신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정의 수입이 줄어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5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신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가족 중에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가정 유지비(음식, 의류, 세금)가 많이 든 다.	①	②	③	④	⑤
8	자녀의 교육(성적, 예절교육)에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시부모님과 의견(자녀양육, 개인적인 습 관 등)이 맞지 않아 속상한 적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부부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 싸움이 잦아 졌다.(개인적 습관 등의 이유로)	①	②	③	④	⑤
11	투자한 주식 또는 부동산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	①	②	③	④	⑤
12	자녀들 간에 다툼이 많아 졌다.	①	②	③	④	⑤
13	시부모님께서 다른 집 며느리와 비교해 말씀하신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 사망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남편이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 다.	①	②	③	④	⑤
16	시댁에 경제적 지원을 해 준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자녀를 경제적 지원을 해 준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뒤에 계속됩니다.

18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9	시부모님께서 나에게 섭섭함을 느꼈을 때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자녀를 교육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21	가족이나 형제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	①	②	③	④	⑤
22	가사일로 몸이 피곤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자녀들이 늦게 들어온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시부모님이 딸과 며느리를 달리 대하신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남편과의 성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26	가족의 의료비용이 증가했다.	①	②	③	④	⑤
27	요즘 들어 피곤하고 힘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28	시부모님과 친정 나들이나 친정 친구 왕래 때문에 갈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뒤에 계속됩니다.

Ⅲ. 이 검사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자아정체감]

각 항목별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V표 하여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매우 해당 된다	조금 해당 된다	어느 쪽도 아니 다	별로 해당 되지 않는 다	전혀 해당 되지 않는 다
1	나는 내 일을 처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이 세상에 있으나마나 한 존재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잘 모르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시작할 때는 열성을 보이나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다른사람의 충고를 무턱대고 따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모임에 나가면 가급적 사람이 적은곳이나 구석에 앉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자신보다 부모님의 신념에 따라 행 동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가치관이라든가 신념이란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9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보잘 것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를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꾸준히 한가지 일에 몰두하지 못한 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잘 이끌린 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나의 장래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 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삶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 뒤에 계속됩니다.

문 항 내 용		매우 해당 된다	조금 해당 된다	어느 쪽도 아니 다	별로 해당 되지 않는 다	전혀 해당 되지 않는 다
17	나의 일은 내 스스로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집안에서 나는 꼭 필요한 존재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장차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 스스로도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20	한가지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1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여러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마음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23	자신이 '살아가는 중요한 것'등을 생각한 바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24	아직 내 자신이 인생관에 대해 생각한 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내 판단에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장래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계획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혼자서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가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30	여러사람이 있는 곳에는 앞에 나서기가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 적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32	자신의 인생관에 대하여 확신이 없어진 때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 뒤에 계속됩니다.

문 항 내 용		매우 해당 된다	조금 해당 된다	어느 쪽도 아니 다	별로 해당 되지 않는 다	전혀 해당 되지 않는 다
33	나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간다.	①	②	③	④	⑤
34	이 세상일은 결국 허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의 인생진로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빈둥거리며 많은 시간을 보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7	나는 다른 사람을 이끌기 보다는 따라가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8	할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고 그냥 넘기는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39	부모에게 맞는 종교는 나에게도 틀림없이 맞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0	나는 무엇을 할려고 해도 의욕도 없고 빌빌 지나가 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41	나는 내 모습 이대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2	나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갈 것 같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43	나는 장래의 일을 결정할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44	나는 일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5	나는 결단력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46	나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유별나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 한다.	①	②	③	④	⑤
47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며 그 점에 대해 어떤 생각도 없다.	①	②	③	④	⑤
48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 뒤에 계속됩니다.

문 항 내 용		매우 해당 된다	조금 해당 된다	어느 쪽도 아니 다	별로 해당 되지 않는 다	전혀 해당 되지 않는 다
49	나는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0	나는 다른 사람들 보다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1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 놓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2	나는 어렵거나 힘든 일은 피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3	스스로 생각하기 보다는 남들의 좋은 생각을 기다린다.	①	②	③	④	⑤
54	나는 모임에서 지도자 역할을 기꺼이 맡는다.	①	②	③	④	⑤
55	내게 적절한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에 대해 별 관심없다.	①	②	③	④	⑤
56	때때로 나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7	나는 일단 시작한 일은 기필코 끝내고야 만다.	①	②	③	④	⑤
58	나는 근본적으로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9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0	나는 남달리 잘하는 일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61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타인의 언동에 영향 받기 쉽다.	①	②	③	④	⑤
62	나는 낯선 곳이나 새로운 일을 두려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63	나는 내 장래 일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64	이따금 내가 나 자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 뒤에 계속됩니다.

Ⅳ. 다음은 가족건강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심각 하지 않다	심각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심가 하다	매우 심각 하다
1	우리 가족은 함께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가족은 서로를 위하는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문제를 해결할 때, 가족원 모두에게 최선의 해결책이 되도록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솔직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가족은 다른 사람보다 우리 가족원에게 더 친근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가족원끼리 협력하면서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온 가족이 함께 할 일을 결정하기는 매우 쉽다.	①	②	③	④	⑤
8	온 가족은 서로 믿으며 숨김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산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가족은 화목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가족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가족은 서로 비슷한 가치관과 신념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가족 가치관과 규칙은 명확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족에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가족은 서로 감싸 준다	①	②	③	④	⑤
15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족 모두가 책임을 동등하게 진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 가족은 서로를 존중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는 서로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 뒤에 계속됩니다.

18	우리 가족은 가정에 충실하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는 문제를 다각도로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어떤 결정할 일이 있을 때에는 가족 모두가 의견을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우리 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우리 가족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해 일치 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우리 가족은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직접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25	우리가족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서로 일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우리는 서로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27	힘들어하는 가족원이 있을 때에는 다른 가족원들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8	우리 가족 간의 의견 차이는 극복하기가 쉽다.	①	②	③	④	⑤
29	우리 가족만의 전통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0	우리 가족은 서로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1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진실하다.	①	②	③	④	⑤
32	우리 가족은 관심사와 취미가 같다.	①	②	③	④	⑤
33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애정 표현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우리는 가족의 규칙이나 가치관을 함께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ABSTRACT

The Effects of Family Relationship Stress and Self-Identity on Family Health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Gangwon-do

Eun-Young, SO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Brain Education
Earth Business Administration

This study is a multicultural family centered on Gangwon area.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54 multi-cultural family migrant women living in the 18 provinces and counties of Gangwon Province.

Three measures including family relationship stress, self-identity, and family health of multicultural family migrant women are included.

First,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 family migrant women are 45.5% in age 30s, 39.0% in high school graduates, 40.3% in China, 73.4% in residence periods over 10 years, and incomes over 1 million won. This 49.0% group was the largest.

Second,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on the effects of family relationship stress and self-identity on the overall family health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most important factors were economic stress and future uncertainty. Gangwon-do has a very low employment rate due to regional characteristics.

Third,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on the effect of the subdomain of self-identity of multicultural family migrant women on the ties between family members and sharing of value system among family members, the future convic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other words, family ties and sharing of value systems were low.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hat can improve the multicultural family migrant women and their family health by examining the direct effects of family relationship stress, self-identity, and family health.

Key words: family relationship stress, family health, self-identity,
multicultural family migrant women, multicultural